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1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을학기
에스라 · 느헤미야 · 에스터

“이 때를 위함이라”
For such a time as this
(에 4:14)

9월 7일~11월 30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아펜젤러 선교센터> 리모델링 후 재개관

해외 선교사들의 국내 체류와 재충전을 위한 시설로 사용 예정

인우학사가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다음달 11월중에 선교사들을 위한 아펜젤러선교센터로 새롭게 개관한다. 인우학사는 1954년 6·25전쟁 직후 미국연합감리교회 인디애나연회가 후원해 건축한 뒤 놓여준 교역자 자녀의 서울 유학을 돕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시간이 지나 건물 노후화로 광림교회에서 22억원의 건축비를 투입 1996년 최신 시설을 갖춘 건물로 재건축하여 128명의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로 그동안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건축된 지 25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코로나19로 지난해 학생들이 모두 퇴소한 뒤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다가 인우학사를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미기로 결정했다. 그 명칭도 미국 감리교에서 한국에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의 이름을 붙인 선교센터로 변경하게 되었다.

해외선교사들의 쉼터로 탈바꿈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는 지난 5월 셋째 주 선교주일 때 “현재 감리교 해외선교사들이 아마존 밀림에서 아프리카 정글까지 세계 80개국에 1,340명이 넘는 인원이 파송되어 나가 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교사들은 귀국하는 대신 현지에 머물면서 묵묵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들이 잠시 불 일이 있어 고국에 돌아와도 마땅히 머물 곳도 없고 제대로 된 숙소가 없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가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 일이 허다하다.”

“그동안 인우학사가 지방 교역자 자녀들의 기숙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였지만 최근 상황이 변화하여 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기에 이번에 내부공사를 새롭게 하여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광림교회는 선교주일 때 성도들이 낸 헌금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용 20억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아펜젤러선교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40평의 건물로서 내부공사 이후에는 게스트룸 29개(기본형 12개, 가족형 17개), 예배실 1개, 세미나룸 3개, 선교관련 사무실 5개, 선교자료실 1개, 기타 주방 및 식당, 세탁실, 그리고 행정실, 운영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선교자료실에는 현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80개국의 현지선교사 보고서와 그곳 나라의 역사, 문화, 언어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할 예정이다.

기도하고 안식하는 선교센터
선교센터의 운영은 감리회본부와 협의하여 광림교회에서 맡기로 하였고, 이를 담당할 센터장으로 서울남연회본부에서 간사와 총무로 25년간 사역한 이상훈 목사가 임명되었다. 이 목사는 “이곳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이 편

안히 쉼을 얻고 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응답이 되고 나아가 새롭게 재충전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곳에 해외선교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쌓여서 선교 지망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아펜젤러선교센터의 목표를 말하였다.

이득섭 기자



새로움을 창조하는 지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야고보서 3장 13절)

지혜는 무엇이 가치있고 중요한지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사도 야고보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말을 통해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 하나님에 대한 앎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적인 순종과 행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의를 행함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진정한 믿음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와 참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볼 수 없는 풍성한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무엇보다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주시는 새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새로운 신앙을 창조합니다.

지혜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잠언의 기자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잠 24:3)라고 말합니다. 건축하기에 앞서서 지혜가 먼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참된 지혜가 있을 때 이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지혜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참된 지혜, 곧 위로부터 난 지혜와 시기와 독한 마음으로부터 온 거짓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거짓 지혜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 내가 너무 소중하기에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 새로운 신앙을 창조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데,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는 우리를 새로운 신앙으로 이끌어 갑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는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창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18절

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온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또한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창조합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파벌을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뢰를 깨뜨리고 서로 의심케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본문은 이러한 지혜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15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전까지 우리도 이러

한 지혜가 최고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짓된 지혜가 참되고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며,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성결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면 이전에 추구하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시 119:130).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어 나만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이기적

이었던 옛 생각과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창조해냅니다. 이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할 때,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는 새로운 삶의 열매를 창조합니다.

본문 17절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맺는 다섯 가지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화평’입니다. 화평은 곧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 화평의 사람이 되어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용’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거나 베푸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절제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양순’은 다른 사람을 통해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만의 소유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지혜에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지혜가 가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것으로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새로운 삶의 열매를 창조합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 이러한 삶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음을, 거짓이 없다는 것은 숨겨진 다른 의도 혹은 가식이 없이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갓플렉스, 교회 밖 청년들 태우는 버스 역할”

11월 19일 <성령한국 청년대회 x 갓플렉스 시즌2> 공동 주최



‘성령한국 청년대회 x 갓플렉스(GodFlex) 시즌 2(이하 갓플렉스)가 11월 19일 광림교회에서 열린다. 갓플렉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의미로 국민일보와 광림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국민일보 크리스천리더스포럼이 청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정석 목사는 지난 1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갓플렉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갓플렉스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청년들, (교회라는) 집을 떠나왔다는 아쉬움을 품은 젊은이들을 태우는 버스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광림교회는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개최하며 청년선교에 집중해 왔다. 김 목사는 지난해 기감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취임한 뒤에도 한국교회의 위기를 교회에서 젊은 세대가 사라짐에서 찾아 청년 사역에 주목해왔다.

김 목사는 대한민국 1인 가구의 비율이 40%다. 청년 중에는 결혼하지 않거나 미루고,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많다. 1인 가구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또 “지금의 청년들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엔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었지만 꿈과 비전을 이룰 여지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많은 의미를 가지며,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었으면 한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으로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갓플렉스에서 설교를 맡은 김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회복하지는 애길하고 싶으며 ‘거룩하자’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자는 걸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가리킨다”라고 했다.

원문 보기

위 글은 국민일보 인터뷰 요약입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 x 갓플렉스 시즌2

- 일시: 11월 19일(금) 오후 7시
- 장소: 광림교회 본당
- 프로그램:
 - 1부(예배): 찬양 - 플레이트워십 합부영 설교 - 김정석 감독(서울남연회)
 - 2부(강연): 토크콘서트(사회 정선희) 박위(유튜버), 존리 대표, 손주는 회장
 - 3부(공연): 소향

포토 뉴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진행되고 있다.



2021 수험생 기도회 10월 9일~11월 17일까지 웨슬리관 3층 고등부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가엘 성가대 지휘자 1부 예배 미가엘 성가대 송성철 지휘자가 부임했다.



나사렛 성가대 지휘자 2부 예배 나사렛 성가대 서진 지휘자가 부임했다.

담임목사 동정



- 10/11-13 감리교전국목회자세미나
- 10/14 감리교평신도단체장 기도회
- 10/15 기독교역사문화재단 이사회
- 10/18-21 서울남연회 목회계획세미나
- 10/22 감리교군선교회
- 10/26-28 감리교입법의회
- 10/29 서울남연회 평신도수련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제15회 청장년부<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캠프>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려



지난 10월 23일(토) 청장년부는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제15회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캠프>를 진행했다. 아가세 캠프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창 3:9)를 주제로 코로나 선제검사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집회와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었다.

아가세 수련회에 참석한 김용세, 배미혜 성도 가정은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가세 캠프를 통해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감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살인 아른이도 아가세 캠프를 갔다 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좋아함에 놀랐고 감사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유지형 속장은 “아가세 캠프에서 청장년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권사)는 “코로나로 2년여의 시간을 특별히 더 힘들게 보낸 청장년부 지체들이 코로나 4단계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모이기에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어른 53명 아이들 43명의 청장년 1·2부 참석자 모두가 사전 코로나 검사를 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진행한 감사한 집회였습니다. 수련회 한 달 전부터 모두가 마음을 모아 릴레이 기도도 주님께 올린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선물과도 같은 좋은 날씨에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했다.

아가세 주제인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정일 목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서기로 결단하고, 혼자라는

두려움과 답답함에 고립되어 숨거나 도망하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했다.

신 권사는 “주의 손으로 보호하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킨 주의 사람들을 함께 교회로 세워 주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고, 한용세 목사의 찬양 콘서트를 통해 코로나 기간 동안의 힘들고 지쳤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의 주신 은혜를 따라 날마다 예배로, 죽기 살기 성경 읽기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으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고, 서약할 자리에 바로 서서 주의 몸을 세워가는 청장년부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청장년부는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사회 봉사관 4층 컨벤션홀B에서 집회로 모이고 있다.

유심원 전도사(청장년부)



1953 68 2021 years

광림교회 창립 68주년기념 역사사진전 - I

1953 ~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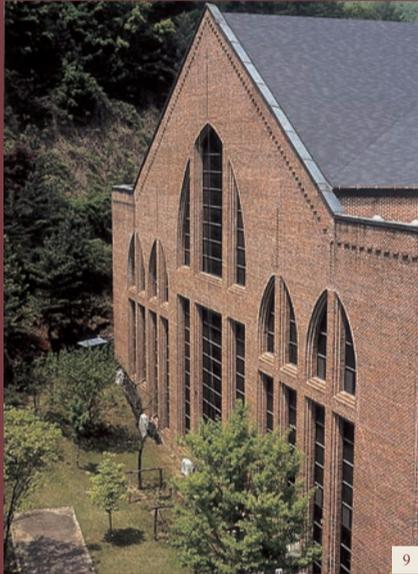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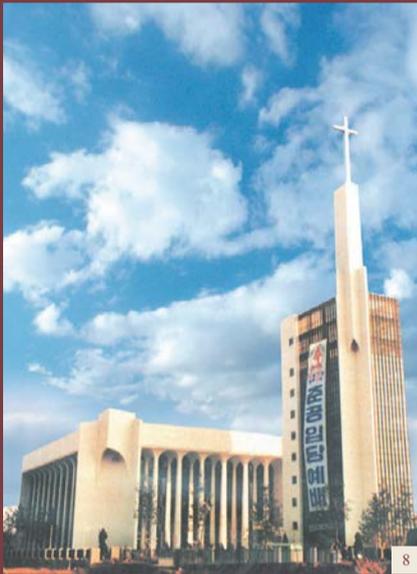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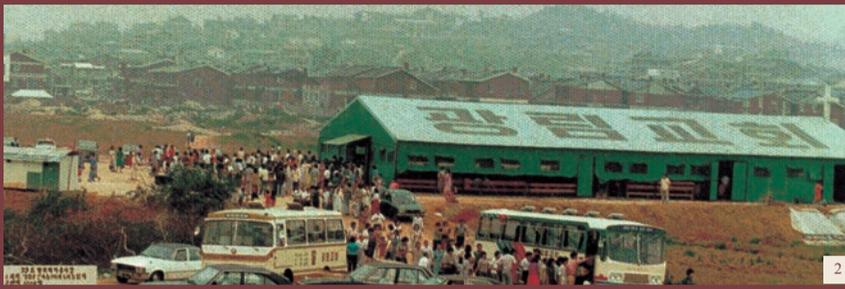
- 1 1953년 고야사에서 광희문 제2교회(광림교회 모체) 창립예배
- 2 1953년 9월 27일 광희문교회 주보
- 3 교회창립 2주년 기념예배
- 4 1959년 고등부 핑크스톤 선생님과 함께
- 5 초창기 남선교회 야외예배
- 6 초창기 여선교회 다과 봉사
- 7 1965년 4월 개원한 쌍림동 유치원
- 8 구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 9 5대 김선도 목사

1971 ~ 1977



- 1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들
- 2 공군사관 예배를 인도한 김선도 목사
- 3 초창기 임원들
- 4 초창기 성가대원
- 5 쌍림동 구성전
- 6 교회창립 20주년 기념관 정초식
- 7 1977년 김선도 목사와 기획위원회
- 8 감리교 갱신 총회 후, 총리원 헌판식
- 9 농어촌교회 돕기운동

1978 ~ 1989



- 1 2 1978년 신사동 배나무밭에서 본당 성전 건축 기공예배
- 3 1978년 천막교회 김선도 목사 설교
- 4 1979년 입당예배
- 5 1981년 4월 12일 누가의료선교회 창립
- 6 1985년 전교인여름수련회
- 7 1989년 총력전도주일
- 8 1979년 입당예배
- 9 1988년 광림수도원 봉헌
- 10 1989년 웨슬리 교육관 봉헌

1990 ~ 2000



- 1 1990년 2월 27일 본당 증축 기공
- 2 1991년 4월 1일 사랑의집 봉헌
- 3 1998년 스테인드글라스 봉헌
- 4 1995년 7월 20일 광림세미나 하우스 봉헌
- 5 1995년 모스크바 광림선교센터 봉헌예배
- 6 1994년 김선도 목사 감리교 감독 회장 당선
- 7 1999년 9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교회 봉헌
- 8 2000년 6월 21일 터키 안디옥 교회 봉헌

내 인생의 말씀

자녀에게 물려줄 온전한 믿음의 유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약 5:13)

이 말씀은 이번 추석에 가정 예배 시간에 시아버지께서 본문으로 사용하신 말씀이다. 이미 여러 번 듣기도 했고 알고 있던 구절인데 이번 예배 때 유독 새롭게 들리더니 요즘 계속 내 마음 속에서 저절로 되새겨 지곤 한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에 고난당할 때와 즐거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어찌 살아야할까? 나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답을 찾았다.

결혼 한지 올해로 20년이 되니 시부모님을 뵈지도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담대한 모습으로 더욱더 기도하셨다. 기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 찬송하셨다.

삶으로 주의 말씀을 보여주셨으니 나에게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말씀공부이다.

나에게도 가장 쓰라린 아픔을 겪은 때가 있었는데 바로 2003년 첫아가기 유산이 되어 수술을 했어야 했던 때이다. 시아버지께서 주일 예배 후 교회마당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셨다. 그 때 그 기도는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다. 지금도 기도해 주셨던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 마음이 뭉클해진다.

우리 부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평생 실천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 줄 수 있길 소망한다. 아직은 어렵고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 평소에 기도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기도를 쉬었던 기억이 왜 이리도 많은지~ 기쁜 일이 생겼을 땐 먼저 찬송했다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만하다 끝난 것 같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광림교회에 아주 많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이 배우라고 여선교회와 속회 등 곳곳에서 롤 모델들을 만나게 하신다. 그분들을 따라서 훈련받고 배우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자고 다짐하곤 한다.



김주미 집사 (여선교회총연합회 CD루디아 회계)

<아펜젤러 선교사-1>

조선에 온 첫 감리회 선교사, 헨리G.아펜젤러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첫 선교사 헨리G.아펜젤러는 부인과 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에 상륙했다. 이때 아펜젤러는 27세였다.

당시 갑신정변으로 인해 서울의 분위기는 평온하지 못했다. 미국 공사는 자국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여성들이 서울에 오는 것을 삼가라고 했기에, 총각이었던 언더우드는 서울로 올 수 있었지만, 아펜젤러 내외는 인천에 일주일간 머물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후 두 달 보름이 지나서야 서울의 정세가 안정되었고, 일본에 머물던 의료선교사 스크랜턴의 가족들과 함께 6월 20일 인천항으로 재입국했다. 스크랜턴 가족은 바로 서울로 상경한 반면, 아펜젤러 선교사는 서울의 주택 개조와 수리에 시간이 많이 걸려 인천에 28일간 더 머물러야 했다. 결국 1885년 7월 19일 서울에 도착하여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의 랭커스터에서 시작된 아펜젤러의 선교여행은 세인트루이스를 거쳐 샌프란시스코까지, 그리고 1885년 2월 3일 샌프란시스코를 출항하여 태평양을 건너 2월 27일 일본 요코하마까지, 그리고 나가사키 항을 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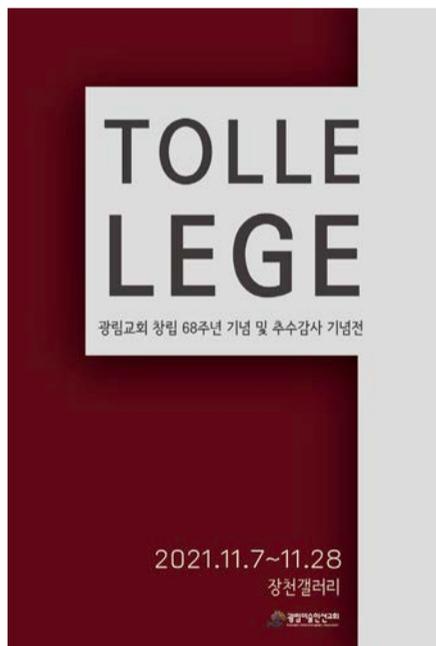
인천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하여 결국 그해 7월 19일이 되어서야 서울에 도착했으나,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 무려 5개월간의 여행을 한 것이다. 이처럼, 선교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국 감리교회의 개척자요 선구자였으며, 순직하기까지 생명을 다해 영혼을 구원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절에 죽음의 장벽들을 산산이 부순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뜨리시옵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빛과 자유로 인도하십시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문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창립68주년, 추수감사절 기념전 <광림미술인선교회>



광림미술인선교회는 광림의 미술인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선포와 신앙고백이 담긴 작품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 미술문화 사역을 해온 지 올해로 12년이 되었다. 미술인선교회는 상반기인 4월에 부활절 기념전, 하반기인 11월에 추수감사절 기념을 겸한 교회창립 기념전으로 매년 두 번의 정기전을 하고 있다.

2021 광림교회 창립 68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절 기념전인 <톨레 레게(TOLLE LEGE= 취하여 읽으라)>전이 본당 장천갤러리에서 11월 7일(주일)부터 11월 28일(주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위축되고 멈춰진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하고 전시하는 미술인선교회의 <톨레 레게>전은 우리의 연합함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독교문화의 한마당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문화예술의 사명에 부름받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광림의 기독교미술인들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창조성과 예술적 재능으로 헌신할 때, 세상의 문화예술을 정화 시키며 기독교 문화의 물꼬를 터 가는 과정이 된다.

이 헌신을 통해 작품을 만나는 어느 누군가 에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동양화, 서양화, 문인화, 섬유미술, 사진, 금속공예 등으로 다양하며, 이번 전시회에는 김남주, 김현우, 김혜령, 민선홍, 박소영, 박 정, 변영혜, 서희진, 안지아, 이수자, 이시원, 임재식, 임현규, 조명애, 조예선, 최광대, 한은선, 홍 립 등 총 18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수확의 풍요함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68년간 광림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톨레 레게'전이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도들을 초청한다.

변영혜 기자

ENGLISH BIBLE ACADEMY 영어성경원 개원. 과 목: 요한1, 2, 3서(1, 2, 3 John) 유다서(Jude). 강의기간 및 시간: 10월17일~12월5일(8주간) 오후2시~3시30분. 장소 및 등록: 양의문(등록비 2만원). 준비물: NIV한영성경. 문의: 양경순장로 010-8545-1945.

‘빛을 담아 피어나다’

<달레트> 온라인 펀딩 프로젝트 - 달맞이꽃 찻잔 세트



광림교회 청년부에는 14개의 사역팀이 있습니다. ‘빛’을 모티브로 한 달레트(가로수길 선교팀)는 다양한 크리스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매해 새로운 시즌마다 성경 한 구절을 선정하여 공연, 전시, 원데이 클래스, 펀딩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합니다.

달레트는 많은 사람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공연, 강연,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 가로수길에 섰고 따뜻한 영향력을 심어온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각 프로젝트마다 선정된 주제에 맞게 준비된 여러 아이템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문화적인 방법들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로수길에서 직접적인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새롭게 고민했습니다. 사역의 방향성을 전환하게 된 달레트 팀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공간에서 클라우드 펀딩으로 빛을 배송하려 합니다. 팀에서 함께 목상한 성경 말씀에서 키메시지를 추출해 하나의 일상 속 아이템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레트는 가로수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녹아있는 터전 곳곳에 빛을 심으려 합니다. ‘복음, 이제는 브랜딩! 문화에 블랜딩!’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으로, 달레트 팀은 이번 펀딩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목상하였고, 이 주제를 담아낼 아이템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달은 빛을 밝히고, 그 빛을 받아 달맞이꽃은 피어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빛과 소망이 됨을

상징화 하여 달맞이꽃이 꽃이 표현된 찻잔 세트를 준비하여 일상의 티 문화 안에서도 복음을 발견하고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찻잔 세트를 제작할 도자기 공방과 조율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채리 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 팀은 세상과 복음을 잇는 아주 가는 봉제선 위에 서서 계속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과 복음을 연결할 방법에 대한 기도와 목상이 이번 아이템에 겹겹이 담긴 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세상에 온전히 흘러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고, 이제 팀원은 ‘이번 달레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코로나라는 일상 속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어둠을 찢어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소망과 사랑이 많은 분들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맞이꽃 프로젝트를 통해 달레트 팀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발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

저는 청년부 2교구 속장 성원제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처음 속장이 되었을 때, 속장의 역할이 무엇인가고 물어보았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속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과거 속장의 시절에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사역을 많이 하고, 목상과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도 속원들에게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라며 권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다른 것은 제 마음의 중심입니다. 제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나도 그 사람도 실족하고 상처받습니다. 나의 성격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조차 나의 노력으로 100% 고칠 수 없는데, 나는 속원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예수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또한 처음 예수님과 만나기 전의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우울하고, 공허하고, 화도 많고, 의기소침함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내가 이끌어낸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게 손을 뻗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신 걸 과라 생각합니다. 변화만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괜한 말로 속원들을 상처주고, 부담만을 지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속원들을 대할 태도는 내 주관대로 판단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소개해주고 삶을 나누고, 속원들이 나누어준 삶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하고 들어주고, 속원들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임무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속회에서 나 혼자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십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닌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수많은 열매들을 지금이나 그 날에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원제 속장(청년부)

Shining Saturday Activities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세우기



교회학교 새로운 주말교육 프로그램
10월 16일 SSA 16개 강좌가 개강했다. SSA는 교회학교가 새로운 방향으로 기획한 주말교육 프로그램이다. 3년동안 사이닝스쿨(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로 한정하여 만든 문화센터와 같은 공간이다. 수강생 전원은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신앙과 달란트 개발을 도울 수 있다. 기존에 다니는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재능과 실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친구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전도의 통로로 사용되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강일에 70여명의 친구들이 참석하였고 그 중 8명의 새 친구가 왔다. 4명은 교회학교 친구들의 친척이었고 다른 4명은 관심 있는 강좌를 듣고 싶어 왔는데 마침 강사가 섭외 되어 참석하게 되었다. 그 중 한 친구의 어머니와 동생이 교회에 등록하였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강좌와 강사 모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교회에서 말씀도 배우고 재능 개발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미취학 부서와 학부모님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한다. 강좌는 수시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회 선생님께 제출하거나 QR코드를 통

해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새로운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섭외한 후 수강할 수 있다. 교육국 임재철 목사는 “광림교회 방향성이 모태에서 천국까지 전 생애 전인격 목회입니다. 무너져 가는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학교 앞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 못하면 친구들이 찾아오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함께 가지고 사이닝스쿨, SSA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신희경 기자



“세계는 나의 교구!”
복음을 향한 평생의 헌신

‘장천 울림’

16 김선도 감독님, 부활의 교회 스테인드글라스에 새겨진 의미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존 웨슬리의 말처럼 광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전파의 사명으로 국내외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선교 지향적 교회이다. 광림교회는 뉴질랜드,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T국, P국, 잠비아 등 9개 나라 11개 해외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 교회와 선교센터가 세워지기까지 생명과 같이 기도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앞장선 김선도 감독님의 열정과 헌신은 선교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고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복음의 밑알이 되었다.



부활의 교회 스테인드글라스

김선도 감독님과 부활의 교회

미국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부활의 교회 성전 내부 스테인드글라스에는 김선도 감독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해외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광림의 선교센터를 세운 김선도 감독님의 발자취를 발견하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아담 해밀턴 목사가 부활의 교회 스테인드글라스 전면에 위대한 복음적 인물들과 함께 김선도 감독님을 새겨 넣게 되었다.



부활의 교회 담임목사는 1980년대 신학생 시절부터 광림교회의 비전을 알게 된 후 감독님을 ‘현명한 스승, 존경하는 친구, 전 세계 선교의 지도자로 존경하게 되었다. 1994년 러시아와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을 때 광림교회에서 복음전파를 위해 선교센터를 세우고, 신학교 채플을 건축하는 모습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아프리카대학에 방문했다가 그 곳에서도

광림 메모리얼 채플을 보았고 중국, 베트남, 일본, 터키 등 가는 지역마다 광림교회 선교의 발자취를 발견했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1990년 캔자스시티 갈대밭의 한 장례식장을 빌려 아내와 두 딸과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부활의 교회는 2만 명 이상의 성도가 예배드리리는 미국 최대 감리교회가 되었다. 이 거룩한 성장은 쌍림동에서 당시 배밭이었던 신사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천막교회로 시작해 세계적인 감리교회로 성장한 광림교회와 닮은 점이 있다.

후손들에게 남겨질 믿음의 역사

아담 해밀턴 목사는 광림교회에 방문했을 때 성전에 있는 전통적인 파이프 오르간과 스테인드글라스 등 고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존하고 예전적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 이후 부활의 교회가 기존 교회 옆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광림교회에서 드린 예배에 영감을 받아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한 세대가 지나도 교회와 스테인드글라스는 역사에 길이 남아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것”이란 의미를 담았다.

부활의 교회 성전 앞면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에는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50명의 대표적 인물들이 새겨져 있다.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 구약시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이야기들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심에는 부활하

신 예수님이, 오른쪽으로는 사도바울, 성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애즈베리, 마틴루터 킹 주니어 등 사도 시대부터 현대까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얼굴을 새겨 놓았다. 특히 스테인드글라스에는 2017년 봉헌 당시 현존하는 두 사람이 포함되었다. 한 명은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이고, 다른 한 명은 광림교회의 김선도 감독님이다. 2018년 빌리 그레함 목사가 소천하고 현재 생존인물은 김선도 감독님이 유일하다.

감독님의 영원한 목회파트너이자 리닝메이트인 박관순 사모님은 “2017년 4월 부활의 교회 새 성전 봉헌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스테인드글라스에 감독님이 새겨지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직접 가서 축하를 받으며 감사했습니다. 지난 세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척박한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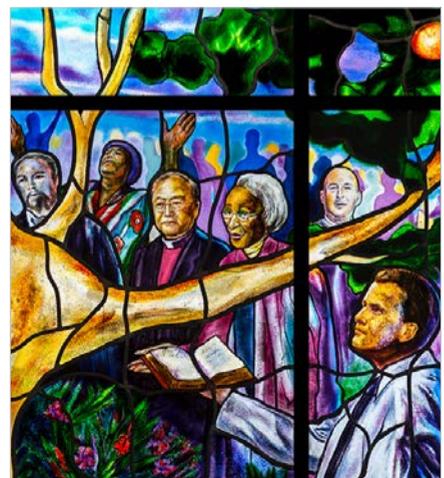
에 눈물로 교회들을 세우며 감독님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던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청년들에게 성지순례 비용으로 아름답게 쓰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감사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도 도로 찾으리라” (전 11:1)
선교는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는 것과 같다. 여러 날 후에 누가 찾을지 알지 못하지만 먼저 받은 은혜가 내 이웃과 소중한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광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이다. 광림교회에서 해외 각국에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청년들은 해외 100교회 봉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재까지 50여개의 교회를 건축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계속 전진하고 있다.

김선도 감독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 광림교회는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정리: 소현수 기자

